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⑦ 맥적산 석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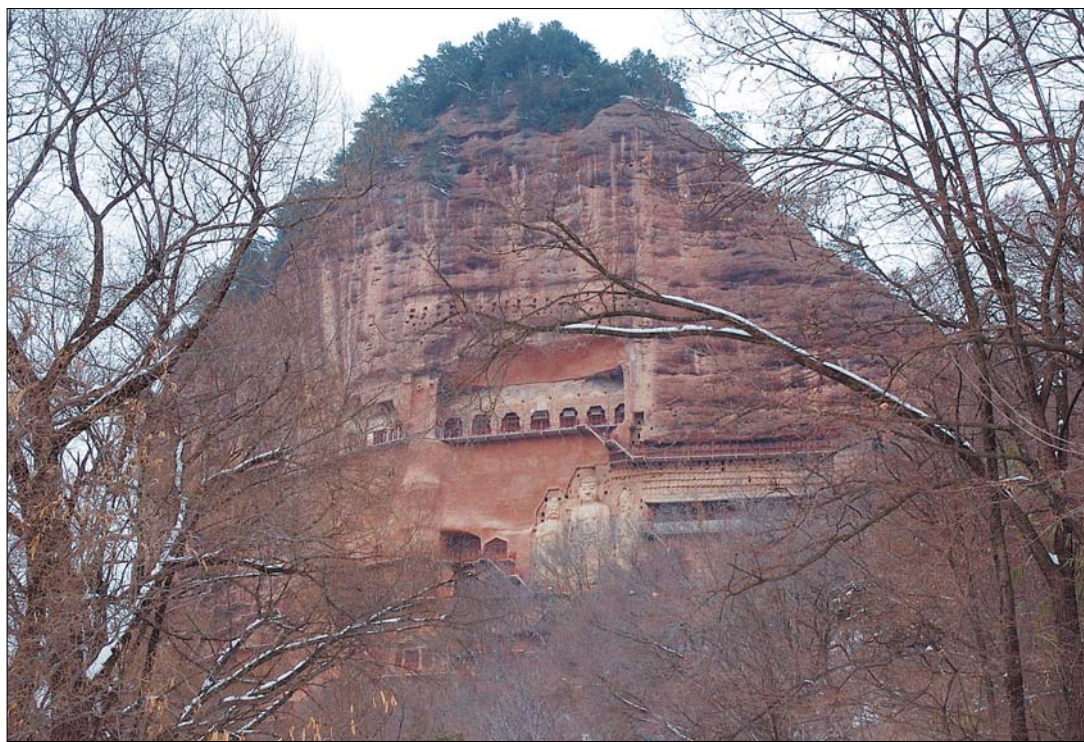
불교 정착지에서 중심지로 발전

병력사가 위치한 난주에서 중국 내륙으로 내려오면 천수(天水)라는 도시를 만난다. 천수에서 다시 동쪽으로 45Km를 가면 맥적산(麥積山)을 만나게 된다.

<태평광기(太平廣記)>에서는 맥적산에 대해 “북쪽으로 청위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양당에 접해있다. 산들이 오백리나 이어져 있는데 그중에 맥적이 있다. 그중 바위 하나가 우뚝 솟아 있는데 높이가 백만 개의 보리더미를 쌓은 것과 같다고 해서 맥적산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돼 있다.

439년에 북량지역(지금의 둔황 난주, 천수 일대)에서 많은 인구를 당시 수도였던 평성(平城, 현재 산서성 대동)으로 이주시키면서부터다. 북위불교는 북량지역의 불교를 접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데 이는 둔황 석굴과 같은 거대한 석굴 조영불사로 드러난다.

북위시대 석굴 조영불사는 현고 스님의 영향이 크다. 북량 지역에서 활동한 현고 스님은 439년 서진이 북량을 정복했을 때, 서진 창건조 하남왕의 외삼촌 양평왕(陽平王) 두초(杜超)에 의해 수도 평성에 초빙돼 국사로 모셔졌다. 현고 스님은 서진이 멸망한 뒤 북위가 평성 지역에 진출 후에도 상당한 정



맥적산 석굴 전경. 거대한 불상은 당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보릿단을 쌓아놓은 것과 같은 산에 절벽을 파고 들어가 새긴 신앙상은 오늘날 보는 이들에게 경이로움을 품게 한다.

다고는 하나 신의 작품이 아닐지 의심스럽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맥적산의 우뚝 솟은 모양은 마치 보릿단을 쌓아 올린 것과 같다. 이러한 산의 서남쪽과 서쪽, 동쪽에는 석굴이 있다. 석굴의 높은 곳은 지면에서 60~70m에 이른다. 이 석굴이 주목되는 점은 주변경치나 석굴의 숫자 때문이 아니라 중국에 불교가 정착하는 과정에 상당히 깊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5호16국시대 중국 북방의 불교국가 중 석굴 조영과 가장 관련이 깊은 국가는 북위(北魏; 386~534)다. 앞서 언급한 서진이나 다른 5호16국의 국가들이 불교를 옹호했지만 북위는 불교에 대한 열렬한 신앙으로 수많은 석굴을 개척했다. 북위 황실의 불교는 몇 차례 변화과정을 거치는데 북위불교의 흐름을 크게 바꾼 것은 북위가 화북(후사 이북 지방으로 중국의 북방지역 전역을 뜻함) 지방을 통일한

지력을 발휘했다. 북위 태자였던 공종이 태무제와 불원한 관계가 돼 현고 스님에게 괴로움을 호소하자 금광참법(懺法)으로 태무제가 태자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꿈을 꾸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현고 스님의 주수행차가 바로 맥적산이었는데 현고 스님이 거주했을 무렵에는 100여 명의 스님들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맥적산 석굴의 개척 시기에 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북위는 강력한 국가 주도 하에 불교를 발전시켰다. 현고 스님의 영향으로 맥적산 석굴은 중국불교의 중심지로 자리했다. 현재 남아 있는 맥적산의 유적들은 바로 이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로 석가모니 불상과 교각미륵보살상 이불보살상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설명한 북위시대에 유행한 법화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우방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52 수덕사의 해질녘



칠백년 묵은 대웅전과 천년쯤 묵은 그림자가 마주 앉은 저녁. 수덕사. 단청은 날아가고 석탑의 그림자는 돌이 되어간다. 어느 도량이든 대웅전 앞에 서면 마음도 달라지고, 눈빛도 새로워진다. 그것이 오랜 세월을 간직한 법당이면 법당일수록 더욱 더 그러하다. ‘먼 것’이 주는 막연함이 알지도 못하는 기억을 찾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처님을 만나는 일도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먼 것’으로부터 오는 그 막연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바람 부는 수덕사의 저녁. 단청이 또 날아가고 석탑의 그림자는 부서진다. 석탑의 그림자를 밟으며 법당 앞을 지나간다. 달라지는 마음, 새로워지는 눈빛으로 늘 걸을 수 있다면...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14도 동방성불편복계장엄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삽화는 제14도부터 19도에 이르기까지 동방, 남방, 서방, 북방, 하방, 상방세계의 부처님들이 아미타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믿을 것을 권하는 내용이다.

제14도는 동방의 아축비불, 수미산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음불이 제각기 넓고 긴 혀를 내밀어 삼천대천세계를 덮어 아미타불의 공덕을 찬탄하고 아미타경을 믿기를 권하고 있다.

동방의 제불들은 각기 공중에 떠있는 원 안에서 연화좌에 앉아 잠잠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됐다. 여래들이 앉아 있는 원들은 모두 구름에 싸여있다. 이 도상은 8번째 목판 원판의 후반부 일부에서 9개의 목판 원판 전반부의 2/3까지 이어져 있다.

“사리불아, 내가 이제 아미타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이여를 찬탄함과 같이 동방에도 아축비불, 수미산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음불 등 이와 같은 향하시수의 여러 부처님이 각각 그 나라에서 광장설상(넓고 긴 혀의 모양)을 내시고 삼천대천세계를 다 덮으시어 성실한 말씀을 이르셨느니라. 너희 중생들이 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일컬어 찬탄하는 것을 믿을지니, 일체의 제불이 호변(호보)할을 늘 마음에 두고 있으면, ‘부처님이 보호하여

준다’는 것이며, 호지(護持)하여 잊지 아니하는 것이라.”

(舍利弗 如我今者 讚嘆阿彌陀佛不可思議功德 東方 亦有阿閼 鞞佛須彌相佛大須彌相佛須彌 光佛妙音佛如是等恒河沙數諸佛 各於其國 出廣長 舌相 徧復三千大千世界 說誠實言 汝等衆生 當信 是稱讚不可思議功德 一切諸佛所護念經)

종교의 생명은 믿음이다. 믿음이란 도구가 없으

면 우리가 원하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어렵다. 아미타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증생들이 믿을 것을 동방세계의 무수한 부처님들까지 내세우면서 간곡하게 설법하는 장면을 보면 그 공덕을 믿고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입심으로 염불함에 앞서 아미타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세워야 함을 느낀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14도 동방성불편복계장엄(東方聖佛備復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c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택 - 상담전화 021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오미자(五味子)는 열매는 신맛, 짭짤은 단맛, 과육은 신맛, 씨는 매운맛과 짠맛으로 오행(五行)의 맛이 있기 때문에 오장육부에 좋고, 산성 소화엔 담즙분비를 촉진하며, 몸안의 지방을 녹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은 작물로 알려져 있다. 친환경오미자 인증번호 제43-3-32호 녹색친환경 오미자 (원전무농약). 오미자는 최근 웰빙 붐을 타고 효능이 속속 알려지면서 건강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는 약용작물이다. 오미자는 공복을 강하게 하고 방광을 수축시키므로 남자의 양기가 약해진 경우, 소변을 잘 참지 못하는 경우, 심사를 오래 하는 경우, 당뇨에 좋다. 평소 땀을 많이 흘리면서 쉽게 감기에 걸리는 어린이에게도 좋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도 있다.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 경우, 불안해서 잠들지 못하는 경우에도 오미자가 좋다. 인삼이나 홍삼이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면, 이제 오미자의 효능과 맛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미자가 조선시대 때부터 임금님의 수라상에 차와 음식의 재료로 쓰여 임금님의 두뇌를 맑게 하고 시력회복을 도우며, 폐기능을 강화하여 감기를 치료하는 등 건강식품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새콤 달콤한 오미자가 학습량이 많고, 시신경을 많이 쓰는 수험생이나 어린이들의 건강에 좋다보니 가정주부들에게 호소성이 아닐 수 없다. 고혈압이나 뇌졸중 예방은 물론 건강보호에도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명약으로 통한다. 옛날 의서에도 오미자의 효능을 극찬하고 있다. 동의보감에는 ‘예로부터 영약으로 피를 맑게 하고 식은땀을 줄이며 각종 해소에 효능이 있다...’

· 생 오미자	1kg	10,000원
· 건 오미자	1kg	70,000원
· 오미자원액	3kg	50,000원
	5kg	70,000원
	10kg	140,000원
· 오미자주 1Box (50포)		50,000원

농장소재지: 경북문경시동로면간송리 256  
계좌번호: 농협 745060-52-032103 예금주 권명숙  
문의전화 011-9377-8961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오기마을. 22년 전통 조상의 얼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응축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분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0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후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연전화: 0531985-1135 / 0541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현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 칼라 지붕 공사